

사고 부르는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 여전

차고지 부족에 갖길 주차...추돌 사망사고 등 운전자 안전 위협 광주 올해 적발 2000여건 중 77% 계도조치로 단속 효과 없어 등록 1만3000여대에 공영 차고지 301면 불과...대책 마련 시급

광주시 북구에 거주하는 박지훈(46)씨는 최근 밤늦게 자신의 차를 몰고 광주 교육대학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불법 주차된 대형 트럭과 충돌할 뻔했다.

박씨는 "이날 비가 내린 탓에 시야확보가 안돼 불법주차된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서행을 하지 않았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지난해 11월 3일 새벽에는 광주시 서구 풍암동 IC사거리 서광주역 방면 도로에서 A(20)씨가 운전하던 마티즈 차량이 도로가에 주차돼있던 10t 화물용 탱크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B(20)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광주도심 곳곳에 불법 밤샘주차된 화물차들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부족한 주차공간이 가장 큰 원인이다. 광주시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이미 확정

된 공영차고지 신설 계획마저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7년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건수는 2223건으로 지난 2016년(1828건)에 비해 395건(21.6%)이나 급증했다. 올해도 상반기(1~6월)까지 광주시 서방사거리, 서구 금호동, 북구 문흥동 호남고속도로 인접 아파트 주변 등 상습 민원 발생지역 등에서 2000여건의 밤샘 불법주차 차량이 적발됐다. 광주시는 이 가운데 1540건(77%)을 단속 계도 조치했다.

일각에선 광주시와 자치구의 단속이 계도위주에 그치면서 오히려 불법 밤샘주차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는 주차공간 부족도 원인이 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 사

업자는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차고지 부족 등으로 대행업체 등을 통해 서류상으로도 차고지를 확보한 뒤 실제 차고지 확보때까지 불법 밤샘주차를 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광주시에 등록된 화물차만 1만 3800여대에 이르지만, 광주지역 대형 화물차 차고지는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화물공영차고지(면적 5만2648㎡·주차면수 301대)를 비롯한 사설 업체에서 운영 중인 ▲각화 화물터미널(면적 3만5701㎡·주차면수 270대) ▲매월 화물터미널(면적 3만9304㎡·주차면수170대) 등으로 총 741대를 수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화물차량 소유주들은 "차고지에 주차를 하고 싶어도, 수백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 탓에 거주지 인근에 불법 밤샘주차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밤 11시께 광주일보 취재진 방문한 전국 화물공영차고지는 주차된 화물차량들로 가득했다.

전국 화물공영차고지의 경우 현재 120여대 이상의 대형 화물차량이 차고지 등록

접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빠른순번은 지난해 4월 등록된 운전자로, 1년 7개월째 대기 중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광주시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올 연말 준공 예정이었던 평동 3차 화물차 공영차고지(273면) 신설 계획을 내년 7월 말로 연기했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박오(54·광산구 월계동)씨는 "광주에 화물차고지가 3곳 밖에 없는 탓에 대부분의 운전자가 거주지 인근에 불법주차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어떤 운전자가 주차비 몇푼 아끼자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주차단속 스트레스에 시달리겠느냐"면서 "그나마 신설 예정인 평동 화물차 차고지도 273면에 불과해 완공을 하더라도 주차 공간 해소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9일까지 한달간 5개 자치구, 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교통사고 취약 지역과 민원발달 지역 등에 대해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극한 작업’ 송전탑 전선 설치 전력산업 근로자들이 7일 광주시 동구 소재 동에서 30m 높이 송전탑에 올라 전선을 설치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체포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여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 국미래기회 회장이 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양 회장에 대한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잔뜩 강요한 영상이 공개돼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앞서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왔다. /연합뉴스

돈 흠치려다 강도살인 30대 징역 35년

광주지법 해남지원 ‘범행 잔혹’

절도 목적으로 주택에 침입했다가 들켜 자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이종환 부장판사)는 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6월 해남군 한 주택에 들어가

A(여·52)씨를 수습차려 쫓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대문이 잠기지 않은 집에 침입해 물건을 뒤지다가 자고 있던 A씨가 깨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A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귀가한 어머니에게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심적 충격과 큰 고통을 입게 됐다”며 “김씨는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유족 또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친 점, 강도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전까지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무기징역을 기준으로 형량상 자량(정상참작)감경 규정을 적용하면 징역 10년~50년에 처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의 경우 잔혹한 범행 수법을 이유로 가중처벌(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을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뇌물수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주 8년만에 검거

골프장 인허가·확장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이 도주 8년 만에 검거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에서 은신 중이던 최 전 교육감을 붙잡았다”고 7일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3억여 원을 받아 행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돈을 전달한 교수 2명을 체포해 진술을 확보한 뒤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들로부터 “골프장에서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말을 듣고

도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최 전 교육감은 잠적했다. 허를 찔린 검찰은 뒤늦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비호인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조를 투입했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주변인들은 최 전 교육감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과 상의하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그 사이 최 전 교육감은 몸을 감췄다.

검찰은 전주와 김제, 서울 등 최 전 교육감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행적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면서 가족을 상대로 자수를 권유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병원치료기록과 신용카드 이용 내용, 휴대전화 사용 이력 등 생활반영 수사도 무위에 그쳤다. 지난 4월에는 최 전 교육감의 장례가 전주 시내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는 낭설이 퍼지기도 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의 친형이 숨진 게 와전된 것으로 확인했다.

도주 초기부터 일본 밀항설, 조직 비호설 등 억측도 난무했다. 최 전 교육감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최 전 교육감이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이른 시간 내에 검거 경우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박기섭 기자 parkks@연합뉴스

교도소 복역한 사이 가족 이사로 연락 끊기자 또 절도

○...절도죄로 교도소에 복역한 사이 가족들이 연락을 끊고 이사를 가버리자, 출소 후 생활비를 받기 위해 금품을 훔친 30대가 9개월 만에 또다시 철창행.

○...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8)씨는 지난 6월 7일 새벽 3시께 광주시 북구의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태블릿 PC를 몰래 가져가는 등 지난 9월 14일까

지 대학 도서관 4곳에서 6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절도죄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조사에서 “아버지와 가족들이 아무 연락도 없이 이사를 가버려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어서 물건을 훔치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 · 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